배우 강소라, 연애 서툰 돌싱녀 도전… "나는솔로 참고했죠"

지니TV '남이 될수 있을까'로 6년만 안방 복귀
결혼 3년차 "돌싱 연기 부담 없이 오히려 기대"

신혼인 강소라(33)가 이혼전문 변호사로 돌아올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지니TV '남이 될 수 있을까'는 '변혁의 사랑'(2017) 종방 후 6년 여 만의 안방극장 복귀작이다. 결혼 3년 차로서 '돌싱'(돌아온 싱글)을 연기하는데 부담은 업었다며 "오히려 기대가 컸다"고 털어놨다. 20대 때 로코·멜로물에서 주로 거침없고 직진하는 캐릭터를 선보였는데, 30대가 된 후 "다채로운 면을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직 신혼 생활을 즐기고 있는 만큼, 연애·결혼·이혼 예능물을 보며 캐릭터를 연구했다고 덧붙였다.

"'애로부부'와 '고딩엄빠' '나는솔로' '돌싱남녀' '환승연애' 등을 많이 봤다. 되게 재미있었고, 리얼한 감정을 느꼈다. 특히 나는 솔로를 재미있게 봤다. 뭔가 절실한 분들의 날 것의 감정이 보이더라.(웃음) 모든 기수를 재미있게 봤고, 최근에도 보고 있다. '오하라'(강소라)는 연애가 절실하지 않았느냐. 하라와 전 남편 '구은범'(장승조)은 연애 경험이 많지 않아서 서툴렀고, 치기 어려서 자존심 싸움도 많이 했다. 나는 솔로에는 연애 경험이 많이 없는 분들도 나와서 도움이 됐다."

이 드라마는 이혼은 쉽고 이별은 어려운 이혼 전문 변호사 하라·은범의 사랑과 인생을 그렸다. 하라는 '소송 여신'으로 불리는 스타 변호사다. 변호사로서 프로페셔널 하지만, 연애는 서투른 인물이다. "하라는 은범에게 만큼은 센 척 했다. '너랑 완전히 전쟁할거야' '너 아니어도 괜찮아'의 태도였다"며 "초반에는 '어떻게 하면 아닌 척 하는 걸 잘 들킬 수 있을까?' 고민했다"고 돌아봤다. "하라는 은범을 사랑했지만, 상대방 감정을 헤아라기 보다 본인 감정을 앞세웠다. 사귀고 헤어지는 것과 달리 '(결혼해) 가족이 되는 건 힘들구나'라고 느꼈다"며 "다른 결을 지닌 사람을 받아들이고 감내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다. 많은 인내·인정·포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라가 은범에게 열 번 차인 뒤에도 계속 고백해 민망하지는 않았을까. "극본으로 봤을 때도 정말 재미있었다. 처음에는 떨면서 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뻔뻔해졌다. '내 고백에 취한다'고 할까. 하라가 점점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았다"며 "난 '에라 모르겠다'라는 느낌으로 했다. 은범 입장에선 공포일 수 있지만, 하라가 귀여워 보였다"고 귀띔했다. 대학생 시절도 연기했는데 "고등학생은 힘들어도 20대까지는 열심히 해보려고 했다"고 웃었다.

"마지막에 헤어졌다가 재결합하는 에피소드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처음에는 '세 번 이혼하는 게 말이 돼?' '너무 드라마적인 설정 아닌가?' 싶었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겠더라. 실제 이혼 통계조사를 봤을 때 신선했다. 젊은 커플보다 황혼 이혼율이 높더라. 극중 '서한길'(전배수) 변호사는 졸혼했는데, 내 친구 부모님도 이런 케이스가 있다. 서류상 이혼은 간단하지만, 아이가 있으면 훨씬 어렵고 무거워진다. 나의 상처보다 아이를 더 신경쓰고 고려해야 할 것도 많을 것 같다."

오랜만에 촬영장으로 복귀, 제작 환경의 변화도 체감했다. 이전에는 촬영 회차가 길고 밤을 새서 찍기 일쑤였다.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촬영 기간이 길어졌지만, 회차는 12부작으로 짧아져 "압축적으로 담아야 했다. 이전보다 더 고민해 연기했다"고 털어놨다. 이 드라마는 ENA에서도 방송, 1~12회 줄곧 시청률 1%대를 유지했다. "물론 더 많이 봐주면 좋다. 당연히 흥행을 바라지 않는 배우는 없다"며 "추이를 보니 계속 상승세더라. 처음부터 분 분들이 의리있게, 끝까지 봐줘서 감사하다. 티빙에서도 서비스하는데, 12부작으로 짧아서 술 한 잔 하며 몰아보기 좋다"고 했다.

극중 다양한 오피스룩도 시선을 끌었다. '오피스룩 대명사'로 불리는 것과 관련 "그렇게 많이 입지는 않았는데, '미생'(2014) 때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다. 당시 테헤란로에서 직장인들이 입을 법한 옷을 입었다. 접근하기 쉬운 브랜드를 찾았고, 화려한 색깔보다 무채색 계열로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는 되게 예쁘게 입고 싶었다. 하라는 스타 변호사라서 능력있고 돈도 잘 벌지 않았느냐. 유명세도 있고 기대치가 높아서 화려한 옷을 많이 입었다. 워너비 여성처럼 느낄 수 있도록 신경 썼다"며 "겉으로 보면 프로페셔널하고 옷도 잘 입지만 '이렇게 허당이야?' '연애는 이렇게 못해?'라는 갭이 드러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강소라는 일과 육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 중이다. 2020년 8세 연상 한의사와 결혼, 8개월 만인 다음해 딸을 낳았다. "남편과 서로 일에 관해 지지해주는 편"이라며 고마워했다. 이전에는 성격이 급해 빨리 결과를 내고 싶어 했는데, "이제 경력도 있고 (결혼 후)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고 귀띔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컨트롤 안 되는 게 생기더라. '놔줄 때는 놔줘야겠구나. 움켜쥐지 말아야 겠다' 싶다. 아직 아이가 어린데, 더 자라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다"며 "일하는 게 행복하다. 되도록 공백기 없이 오래 계속 하고 싶다"고 바랐다.

출산 후 20㎏을 감량, 결혼 전이나 다름없는 외모·몸매를 유지했다. 비결을 묻자 "새로운 건 아니다. 다 아는 건데 안 하는 것"이라며 "정말 평범한데 '와 닿느냐'가 중요하다. 헬스, 필라테스 등 운동하고 식단관리하고 별 다를 게 없다. 이번 달부터는 조은지씨와 댄스 학원을 다니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결혼은 필요한 변화였다. 좀 더 인생을 충실하게 사는 느낌이다.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홀로서기 하면서 놓친 부분을 알게 됐다. 그 동안 부모님에게 서포트를 받으면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다. 이제 나의 일이 되면서 '일과 삶을 같이 사는 게 힘들구나'라고 느꼈다. 이전에는 일과 삶을 동일 시 해 배우 강소라와 인간 강소라가 겹쳐졌다. 이제 온·오프가 확실해졌다. 나 혼자 있을 수 없고 집에서 (아이를) 케어 해야 해 '스위치를 잘 껐다 켰다' 하고 있다. 오히려 일이 더 재미있어졌다. 다음 작품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웃음)"

'지구 마블' 20억 우주여행 상금 걸린 즉흥 여행 시작

ENA 예능물 '주사위 한 번에 대륙이동-지구마블 세계여행'

여행 크리에이터 3대장 빠니보틀, 원지, 곽튜브가 주사위를 던져 무작정 출발한 즉흥 여행기가 공개됐다.

4일 첫 방송된 ENA 예능물 '주사위 한 번에 대륙이동-지구마블 세계여행'에서 여행 크리에이터 3대장 곽빠원은 3MC와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주우재는 "곽빠원을 영상으로 봤다"라며 구독자임을 인증했다. 주현영은 빠니보틀 팬임을 고백하며 "코로나 블루로 힘들었을 때 영상을 보면서 힘을 얻었다"라고 입덕 계기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빠니보틀의 매력을 묻자 주현영은 "위트가 있다"라고 답했고, 곽튜브는 "(콘텐츠를) 안 본 거 아니냐"라고 반문해 폭소케 했다.

이어 3MC와 곽빠원은 우주여행이 걸린 여행 콘텐츠 조회수 대결에서 예상 1위를 꼽아봤다. 주우재는 "맛집을 찾아가도 원조 맛집을 찾지 않냐"라며 빠니보틀을 예상했고, 반대로 빠니보틀은 곽튜브를 지목하며 "요즘 대세다. 별명이 인급동 괴물"이라고 이야기했다. 곽튜브는 "많이 여행하면서 느낀 건 나라 빨이 제일 크다"라고 앞으로의 승부 향방을 예측했다.

곽빠원은 주사위를 던져 첫 번째 행선지를 정했던 순간을 회상했다. 빠니보틀은 "이때만 해도 주사위의 무게감을 몰랐다. 가 봐야지 안 다"라고 이야기했다. 원지는 "현실판 부루마불에 포함된 33개국 중 비자가 필요한 국가 비자는 출발 전 다 발급받았다. 찐으로 어디로 갈지 모르겠더라. 출발하면서 찾아봤다"라고 'NO 예약 NO 답사' 여행을 인증했다.

먼저 빠니보틀이 싱가포르에서 10달러 버티기 챌린지와 황금 열쇠 미션인 '원지, 곽튜브가 정해준 대로 여행하기'를 동시에 수행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출발 전 원지와 곽튜브는 각각 '킹크랩 먹기', '박물관 다녀오기'를 빠니보틀의 여행 플랜으로 정해줘 극강 난이도를 예고했다. 빠니보틀은 자발적으로 10달러 버티기 챌린지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싱가포르는 여행하기 편한 나라라서 이렇게까지 안 하면 콘텐츠 만들기 어렵다. 고생하고 제약이 있어야 사람들이 좋아한다"라고 밝혔다.

'생고생 전문가'답게 빠니보틀은 오랫동안 축적된 여행 경험치를 살려 두 가지 미션을 수행해 나갔다. 그는 기내에서 받은 간식으로 식사를 해결했고, 시내로 나가는 대신 싱가포르 창이 공항에서 노숙하면서 돈을 아꼈다. 또 샴푸 대신 손세정제로 머리를 감는 노하우로 모두를 감탄케 했다. 여기에 빠니보틀은 우연히 자신을 알아본 유학생들에게 "혹시 킹크랩 먹고 남으면 연락 달라"라고 요청하는 사교성을 자랑했다. 이를 본 노홍철은 "진짜 그지네 그지!"라고 한마디해 웃음을 안겼다.

공항을 빠져나온 빠니보틀은 돈을 아끼고자 다음 행선지까지 도보도 마다하지 않는 강력한 의지를 불태웠다. 잠시 후 강렬한 핑크빛 외관을 지닌 아이스크림 박물관이 등장하자, 3MC와 원지, 곽튜브가 큰 관심을 보였다. 빠니보틀은 아이스크림 10개를 연달아 시식하는 폭풍먹방을 선보였고, 노홍철은 "영혼이 털렸다"라고 이야기했다.

원지는 마라맛 방글라데시 여행기를 공개했다. 경유지에서 물가가 싼 숙소를 확인하며 "호캉스 할 수 있어요!"라고 기뻐했으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제작진과 같이 3인실을 쓰게 된 것. 이에 원지는 "숙소가 괜찮아 혼성 도미토리처럼 생각했다"라고 긍정 마인드를 보였다. 노홍철은 여행이 이렇다.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다음날 원지는 방글라데시 다카 로컬 인도 커리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했다. 그는 현지 맛을 그대로 살린 치킨 커리와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하게 챙기는 영업왕 사장님 덕분에 웃음이 끊이질 않았다. 그러나 음식 이름을 묻는 과정에서 뜻밖의 소통 오류를 겪어 웃음을 안겼다.

식사를 마친 원지는 제작진과 툭툭을 타고 기차역으로 이동하려고 했다. 계획과 달리 계속되는 승차거부에 난항을 겪었고, 이를 지켜보던 현지인들의 도움으로 인력거에 올라탔다. 특히 인력거꾼은 원지와 PD, 카메라 감독 3인을 모두 태우고 달리는 방글라데시 스타일로 시선 강탈했다. 주현영은 "여기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놀라워했고, 원지는 "덕분에 제작진과 많이 친해졌다"라고 후일담을 전했다.

라오스 땅을 밟은 곽튜브는 조회수 경쟁에서 앞서고자 '슬리핑 버스를 타고 루앙 프라방 가기' 콘텐츠를 계획했다. 그러나 버스 터미널에서 슬리핑 버스가 없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부터 꼬이기 시작했다. 차선책으로 택한 기차는 40분 차이로 놓쳤고, 예약한 숙소는 기차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설상가상으로 긴급 생리현상이 찾아왔는데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없어 긴장감을 높였다. 주우재는 곽튜브의 '운수 좋은 날'에 안타까워하면서 과몰입했다.

그러면서 곽튜브는 라오스 현지인들과의 네고 현장에서 반값 이상으로 깎는 '네고타노스' 면모를 드러내 3MC와 빠니보틀, 원지를 감탄케 했다. 네고 노하우를 묻는 질문에 곽튜브는 "아니면 말고' 마인드로 임한다. 싫다고 말하지만 속은 불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주우재는 "연애도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자, 곽튜브는 "여행과 달리 연애는 경험치가 없다. 빠니보틀과 제가 합쳐도 주우재 형 반도 안된다"라고 고백해 폭소케 했다.

정상훈 "SNL 회당 출연료 1억? 잘못된 소문"

배우 정상훈이 웹예능 'SNL 코리아'의 호스트 출연료 1억설에 대해 해명했다.

지난 4일 방송된 JTBC 예능물 '아는 형님'에서 SNL 크루 정상훈, 김민교, 정이랑, 권혁수, 이수지, 주현영, 김아영이 등장했다. 그동안 SNL 호스트에 배우 조진웅, 고수, 조정석 등 스타들이 출연한 것을 두고 김희철인 "돈이 많은 건가, MC 신동엽의 인성 덕분에 섭외가 잘 된 건가? (출연료가) 1, 2억이란 이야기도 있다"라고 궁금해했다.

이에 정상훈이 "헛소문이 좀 있다. 돈을 진짜 많이 준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소문"이라고 일축했다. 이 말에 섭외비결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자, 김민교는 "전부 크루들이 오래 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호스트를 섭외하려 노력한다"라고 답했다.

정상훈은 "난 조정석과 친한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 나와야 해? 누가 나오면 좋겠니? 생각은 어때? 뒤에 진짜 잘하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누굴까?'(라는 말을 들었다)"라며 주변에서 조정석을 섭외하도록 압박받았던 사실을 털어놨다.

황영웅, 결국 '불트' 전국투어 콘서트 못 선다

각종 논란으로 '불타는 트롯맨(이하 불트)'에서 하차한 황영웅이 전국투어 콘서트에도 서지 못한다.

5일 제작사 쇼플레이는 "오는 4월 진행예정인 '불트' 전국투어 콘서트 서울공연에 기존 공지된 출연진 중 황영웅을 제외한 13명이 공연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출연진 변동으로 관객분들께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앞서 황영웅은 MBN 오디션 '불타는 트롯맨' 방송 초반부터 유력한 우승 후보로 떠올랐지만, 결승전을 앞두고 지인폭행과 제작진 '밀어주기' 논란 등으로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황영웅은 피해자에게 공개사과하며 자신에게 활동의 기회를 달라고 청하며 결승 1차전에 참가해 1위를 차지했다. '불트' 제작진도 '황영웅 밀어주기' 논란과 관련해 "실시간 문자투표 점수로 결승전 배점이 결정돼 어떤 개입도 불가능한 시스템"이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학교·데이트 폭력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되자 황영웅은 자진해 기권했다. 방송에서는 하차했지만 결승 2차전 이후 열리는 '불트' 전국투어 콘서트에 황영웅이 출연할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자, 제작진은 "전국투어는 제작팀과 무관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어 빈축을 샀다.